

# KREI

## 미국 체리 산업 동향과 시사점

송우진 · 박서윤 · 김경호 · 박다영

## 연구 담당

---

송우진 | 연구위원 | 연구 기획·총괄

박서윤 | 연구원 | 우리나라 체리산업 동향, 경영 실태

김경호 | 연구원 | 미국 체리 산업 동향, 관련 정책

박다영 | 연구원 | 자료 수집 및 정리

해외농업시리즈 24: 미국

### 미국 체리 산업 동향과 시사점

---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0. 12.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크리커뮤니케이션

I S B N | 979-11-6149-466-1 93520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1.2. 연구 방법 및 범위 .....	3

**2. 미국 체리 산업 동향**

2.1. 세계 체리 생산 동향 .....	5
2.2. 미국의 체리 생산 동향 .....	6

**3. 미국의 체리 교역 동향**

3.1. 세계 체리 교역 동향 .....	13
3.2. 미국의 체리 교역 동향 .....	15

**4. 미국 과일 산업 관련 정책**

4.1. 작물보험과 재난 지원(Crop Insurance and Disaster Assistance) .....	18
4.2. 유통명령제(Marketing Orders) .....	19
4.3. 국내 급식 프로그램(Domestic Feeding Programs) .....	21
4.4. 무역 촉진 프로그램(Trade Promotion Programs) .....	23
4.5. 시장 조정 프로그램(Market Facilitation Program) .....	24
4.6. 연구와 홍보 위원회(Research and Promotion Board) .....	26

**5. 한국 체리 생산 현황 및 경쟁력**

5.1. 한국 체리 생산 현황 .....	27
5.2. 한국산과 미국산 체리 경쟁력 비교 .....	32
5.3. 한국 체리 재배의 문제점 .....	38
5.4. 시사점 .....	40

---

6. 요약 및 시사점 ..... 41

참고문헌 ..... 45

**제2장**

〈표 2-1〉 연도별 주요국 체리 생산량 ..... 5  
 〈표 2-2〉 미국의 대표적인 체리 품종 ..... 8  
 〈표 2-3〉 미국 주별 체리 생산 동향 ..... 10  
 〈표 2-4〉 미국 주별 체리 가격 동향 ..... 11  
 〈표 2-5〉 미국 주별 체리 신선-가공 사용량 ..... 11

**제3장**

〈표 3-1〉 주요국 체리 수출 동향 ..... 14  
 〈표 3-2〉 주요국 체리 수입 동향 ..... 15  
 〈표 3-3〉 미국의 체리 수출 동향 ..... 16  
 〈표 3-4〉 미국의 체리 수입 동향 ..... 16

**제4장**

〈표 4-1〉 미국 과일 산업 정책 사례1 ..... 20  
 〈표 4-2〉 미국 과일 산업 정책 사례2 ..... 21  
 〈표 4-3〉 미국 과일 산업 정책 사례3 ..... 25

**제5장**

〈표 5-1〉 국내 체리 생산 경영체 등록 현황 ..... 28  
 〈표 5-2〉 국내 지역별 체리 재배 현황(2019년) ..... 29  
 〈표 5-3〉 국내 체리 경영체당 경영규모 현황 ..... 30  
 〈표 5-4〉 과종별 경영체당 경영규모 현황(2019년) ..... 30  
 〈표 5-5〉 과종별 소득 분석 ..... 31

---

〈표 5-6〉 한국의 신선체리 수입량 및 수입액 추이 .....	33
〈표 5-7〉 한국의 월별 체리 수입 동향 비교 .....	34
〈표 5-8〉 한국의 월별 체리 수입액 및 단가 비교 .....	34
〈표 5-9〉 한국의 국가별 체리 수입 동향 .....	35
〈표 5-10〉 수입 체리 유통 과실 특성 평가 결과(2015~2020년) .....	36
〈표 5-11〉 지역별 국내산 체리 유통 과실 특성 평가 결과 (2018년) .....	37
〈표 5-12〉 수입 체리 품종 '빙'과 국내 체리 품종 '좌등금' 선호도 .....	37

**제2장**

<그림 2-1> 체리 생산 주요국 생산 동향 ..... 6  
<그림 2-2> 미국의 체리 생산 동향 ..... 9  
<그림 2-3> 미국의 주별 체리 생산량(2018~2019년) 및 2020년 생산 전망 ..... 10

**제5장**

<그림 5-1> 수입 체리 월별 동향 비교 ..... 34  
<그림 5-2> 국내 소비자의 수입 품종 '빙'과 국내 품종 '좌등금' 선호도 ..... 38





# 1

## 서론

###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과일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국내 과일 생산액이 정체된 가운데 과실 및 견과류(HS코드 08)의 수입액은 10년간 3배 넘게 성장함.
  - 2019년 국내 과일 생산액은 4조 5천억 원으로 2013년 이후 정체되어 있음.
  - 2019년 과실 및 견과류(HS코드 08류) 수입액은 17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함.
  - 2019년 08류 수입액에 해당연도 환율을 적용하면 2조 원으로 수입 과실 및 견과 수입액이 국내 과실 생산액의 44.2%에 해당함.
  
- FTA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과일의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수입 과일 중 체리는 미국과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2011년 체리 수입량은 4,982톤에서 2012년 9,454톤으로 증가
  
- 체리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과실 수입에서 체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 2019년 체리 수입액이 08류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10년 전인 2009년 3.4%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하였음.

- 체리는 주로 미국과 칠레에서 수입되고 있음. 칠레산 체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산 비중이 큼.
  - 미국산 체리 수입 비중은 2012년에 98.6%에 달했으나 칠레 비중이 높아지면서 2019년에는 72.5%로 감소함.
  - 체리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칠레는 FTA 체결로 인하여 관세율이 철폐된 상황임.
  
- 체리 소비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체리 생산도 증가하고 있음. 한국 체리 재배면적은 2003년 50ha에서 2019년 688ha로 증가함. 그러나 농가당 규모면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체리 전업농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임.
  - 국산 체리는 생산성이 낮고, 외관도 수입 체리에 비해 떨어짐.
  - 재배기술이 부족하고 부적합지 재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한국의 기후에서 원인을 찾기도 함.
  
- 체리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체리 소비량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국내 유통 체리의 대부분인 미국 체리 산업에 대한 이해와 국산 체리의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체리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체리 생산 및 유통·정책을 살펴보고 미국 체리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음. 또한 한국 체리 산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미국 체리 산업과 비교를 통해 생산, 유통 등 한국 체리 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려 함.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 1.2.1. 연구 방법

#### ○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각국의 생산 및 교역 동향 파악

- 생산 통계는 FAOSTAT, 교역 통계는 UN COMTRADE DATABASE를 활용함.

#### ○ 위탁연구 수행

- 한국 체리 산업 여건과 미국의 체리 관련 정책은 위탁연구를 수행함.
- 윤익구, '한국 체리 산업 동향 및 경쟁력'
- 지성태, '미국 체리 산업 관련 정책 연구'

### 1.2.2. 연구의 범위

#### ○ 한국의 체리 생산 및 수입 동향

- 체리 생산 동향, 체리 경영 여건, 체리 수입 동향

#### ○ 미국의 체리 산업 동향

- 세계 체리 생산 및 교역 동향, 미국의 체리 품종, 미국의 체리 생산 동향, 미국의 체리 교역 동향

#### ○ 미국의 과일 관련 주요 정책

- 작물보험, 유통명령제, 급식 프로그램, 무역 촉진 프로그램, 시장 조정 프로그램, 연구와 홍보



# 2

## 미국 체리 산업 동향

### 2.1. 세계 체리 생산 동향

○ 2018년 세계 체리 생산량은 259만 톤이며, 이 중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터키로 세계 전체 생산량 비중 24.7%를 차지함. 미국은 두 번째로 체리 생산이 많은 국가로 세계 생산량의 12.1%를 차지함.

- 2018년 터키의 체리 생산량은 64만 톤, 미국은 31만 2천 톤을 기록함.
- 터키와 미국을 이어 우즈베키스탄, 칠레, 이란 순으로 생산량이 많았음.

〈표 2-1〉 연도별 주요국 체리 생산량

구분	2015	2016	2017	2018	비중(2018, %)	증감률(%)
칠레	105	126	130	156	6.0	48.6
이란	136	140	136	137	5.3	0.7
이탈리아	111	95	118	115	4.4	3.6
스페인	94	101	114	107	4.1	13.8
터키	536	600	627	640	24.7	19.4
미국	307	315	398	312	12.1	1.6
우즈베키스탄	90	110	137	172	6.7	91.1
세계	2,265	2,321	2,466	2,586	100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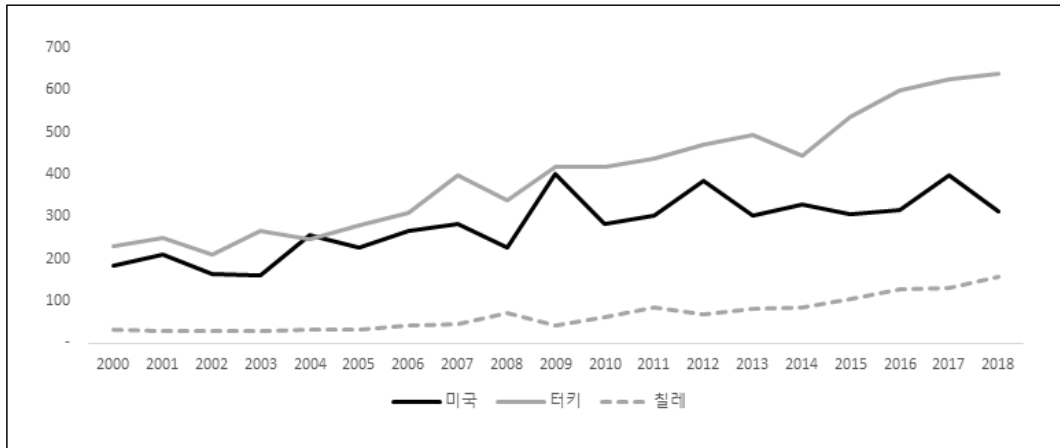
주: 증감률은 2015년 대비 2018년.

자료: FAOSTAT(2020).

○ 터키와 칠레의 체리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 미국의 생산량은 2009년 이후 성장속도가 둔화됨. 미국의 생산량은 터키와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칠레와는 좁혀지고 있음.

〈그림 2-1〉 체리 생산 주요국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자료: FAOSTAT(2020).

## 2.2. 미국의 체리 생산 동향

### 2.2.1. 미국의 주요 체리 품종<sup>1)</sup>

○ 체리의 품종은 1,0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중 미국의 북서부 지역에서 재배하는 주요 체리 품종은 다음과 같음.

#### (1) 빙(Bing)

미국 북서부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체리 품종으로 과실은 단단하고, 과즙이 풍부하며, 무르익었을 때 적갈색의 빛이 남. 과실이 크며, 매우 달고, 강렬한 맛이 특징으로 다

<sup>1)</sup> 미국 북서부 체리 재배자 협회([www.nwcherries.co.kr](http://www.nwcherries.co.kr))에서 발췌함.

른 품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됨. 수확기는 6월 중순에서 8월 초순 사이임.

(2) 쉐란(Chelan)

미국 북서부에서 제일 먼저 수확되는 체리로 과일이 단단하고, 둥글며, 심장 모양의 과실은 빙과 유사함. 완숙된 체리의 색은 적갈색임. 강우에 대한 저항성이 큼. 수확기는 6월 초중순임.

(3) 램버트(Lambert)

과실이 심장 모양이며 빙(Bing)보다 약간 작은 품종임. 색은 적갈색을 띠며 당도가 높아 달고 풍부한 풍미가 특징임. 수확기는 6월 하순임.

(4) 래핀스(Lapins)

과실이 크고 단단해서 잘 터지지 않으며, 적갈색임. 최근 램버트 품종의 대체용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음. 빙보다 10일에서 2주 후에 무르익으며, 풍미가 좋음. 매장에 전시했을 때 시각적 효과가 우수함. 수확기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임.

(5) 레이니어(Rainier)

레이니어의 색은 핑크빛이 도는 황금색, 속살은 노란색을 띠어 다른 체리 품종에 비해 특이함.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하여 씹는 맛과 맛이 좋은 품종임. 빙보다 늦게 수확되며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수확기는 6월 하순에서 8월 초순 사이임.

(6) 스키나(Skeena)

과실이 크고, 단단하며 달며 색은 암적색을 띠. 빙보다 약 16일 후에 무르익으며, 과육이 단단하여 씹는 맛이 좋음. 수확기는 7월 중순에서 8월 초순임.

(7) 스위트하트(Sweetheart)

래핀스보다 1주일에서 10일, 빙보다 3주 후에 무르익는 크고, 밝은 적색의 품종임. 과실이 단단하여 운송에 유리함. 수확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임.

(8) 티톤(Tieton)

크기가 크며, 매우 단단하고 부드러운 단맛을 냄. 빨리 익는 품종에 속하며 과일의 색은 적갈색임. 과실은 굽고 윤기가 나며 꼭지가 굽고 진한 녹색이기 때문에 상품을 진열할 때 시각적인 효과가 좋음. 수확기는 6월 초순에서 6월 말임.

〈표 2-2〉 미국의 대표적인 체리 품종

품종	색깔	모양	맛	당도(° Bx)
빙	적갈색 껍질과 속살	크고 단단함	달고 풍부한 풍미	17-19
쉐란	빨간 껍질과 속살	이른 수확 가능	운송이 편리함	16-17
램버트	적갈색	심장 모양, 빙보다 약간 작음	달고 풍부한 풍미	17-19
래핀스	광택이 나는 적갈색 껍질과 빨간 속살	크고 늦은 시기 수확	딱딱한 조직감	17-19
레이니어	핑크빛 또는 적색이 감도는 금색의 껍질과 맑은 색의 속살	크고 둥근 하트 모양	매우 달고 부드러운 맛과 우수한 조직감	20-25
스키나	검정색에 가까운 짙은 껍질과 암적색의 속살	크고 단단한 신제품	달고 우수한 조직감	19-20
스위트하트	적갈색의 껍질과 속살	심장 모양, 늦은 시기 수확	부드럽고 달콤한 맛, 단단하여 운송에 용이	16-17
티톤	암적색의 껍질	매우 단단하고 큼	달고 부드러운 풍미	16-18

자료: 미국 북서부 체리 재배자 협회(www.nwcherries.co.kr).

○ 체리 주산지인 서북부 지역은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에 일조량이 많은 기후로 체리 재배를 위한 최적의 기후조건이라는 평가를 받음.

### 2.2.2. 미국의 체리 생산 동향

○ 미국에서 재배되는 체리의 종류는 단체리(sweet cherry)와 신체리(tart cherry)가 있음. 단체리는 워싱턴, 캘리포니아, 오리건 등 북서부 지역, 신체리는 미시간에서 주로 재배됨. 이 장에서는 단체리에 한하여 기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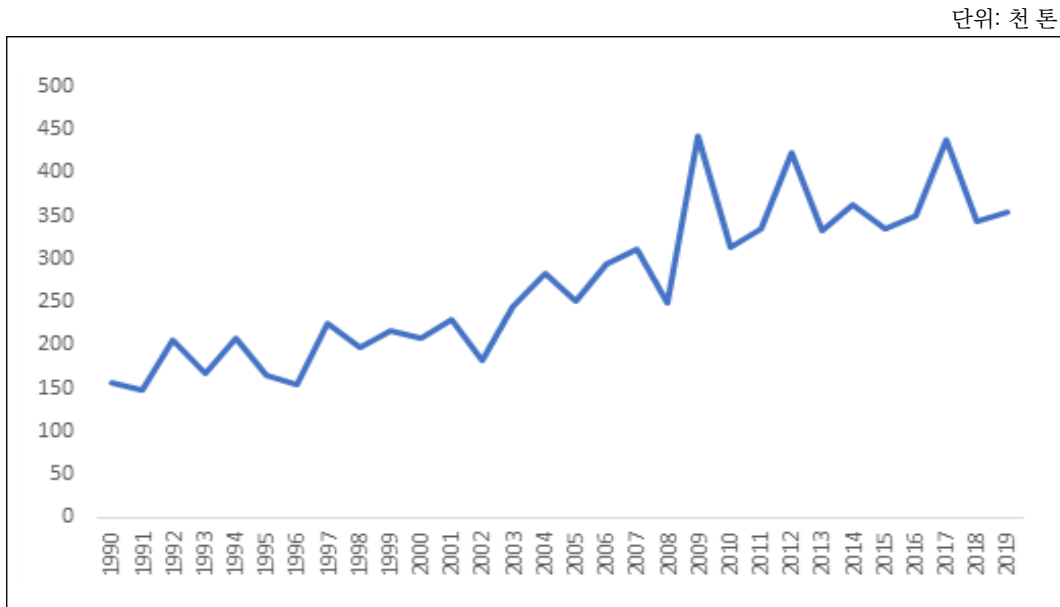
○ 미국의 체리 수확기는 캘리포니아가 가장 빨라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 몬태나 7월 중



순에서 8월 중순, 나머지 주는 6월에서 7월임.

- 체리의 유통은 전통적인 방식인 도매 판매 외에 직거래 형태인 농장 가판, 파머스마켓, 체험농장 등의 경로가 있음. 체리는 손으로 직접 따는 방식으로 수확하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품목임. 이 때문에 체험농장의 경로로 출하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 체험농장은 농장과 소비자의 관계를 강화하고 재구매 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테네시 주립대학교 Extension. 2014).
- 2019년 체리 생산량은 35만 4천 톤, 당해연도 평균 가격을 곱한 생산액은 6억 6,963만 달러에 달함.
- 체리 생산량은 장기적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09년 최고점인 44만 톤에 도달한 이후 성장 속도가 둔화. 200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그림 2-2〉 미국의 체리 생산 동향



자료: NASS(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 2019년 주별 체리 생산은 워싱턴 주가 가장 많은 24만 톤, 캘리포니아 5만 8천 톤, 오리건 5만 7천 톤을 생산함.

〈표 2-3〉 미국 주별 체리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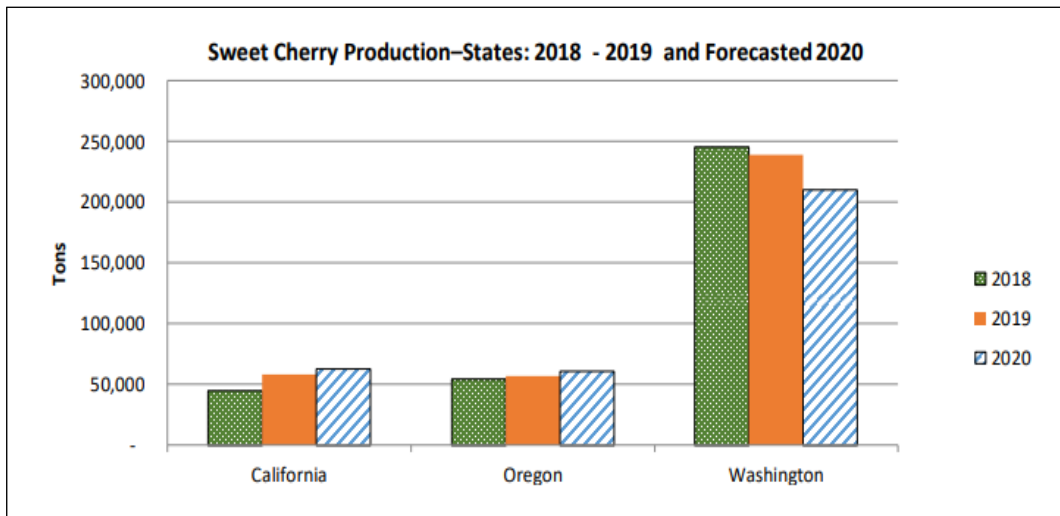
단위: 톤

지역	2017	2018	2019
캘리포니아	97,800	44,800	58,100
미시간	21,300	na	na
오리건	55,900	54,600	57,200
워싱턴	262,550	245,000	239,000
전체	437,550	344,400	354,300

자료: USDA(2020. 5.). Noncitrus Fruits and Nuts 2019 Summary.

- 2020년 미국 체리 생산량은 33만 4천 톤으로 예상됨. 이는 2019년에 비해 약 6% 감소한 수치로 연초 한파로 인한 워싱턴 지역의 생산량 감소가 영향을 줄 것이라 발표하였음 (NASS).

〈그림 2-3〉 미국의 주별 체리 생산량(2018~2019년) 및 2020년 생산 전망



자료: NASS(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2020).

○ 미국에서 주별로 생산된 체리의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캘리포니아의 체리 톤당 가격은 3,520달러로 오리건과 워싱턴 체리 가격보다 두 배 이상 비싸게 거래됨.

- 미국의 체리 수확기는 5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함. 수확 초기에는 가격이 높게 형성된 후, 수확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함.

〈표 2-4〉 미국 주별 체리 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지역	2017	2018	2019
캘리포니아	3,480	3,180	3,520
미시간	765	na	na
오리건	1,270	1,310	1,330
워싱턴	1,810	1,750	1,660
전체	2,060	1,860	1,890

자료: USDA(2020. 5.). Noncitrus Fruits and Nuts 2019 Summary.

○ 체리는 생산된 이후 신선 상태로 유통되거나 냉동, 캔, 주스, 와인, 염장, 건조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유통되고 있음. 미국 전체 가공 비율은 17.9%임.

○ 주별로 가공 비율이 크게 차이 나는데, 가격이 비싼 캘리포니아의 경우 가공 비율이 8.0%(2019년)로 가장 낮았고, 가격이 낮은 미시간의 경우 가공 비율이 93.7%(2017년)에 이르고 있음.

〈표 2-5〉 미국 주별 체리 신선-가공 사용량

단위: 톤

지역	2017		2018		2019	
	신선	가공	신선	가공	신선	가공
캘리포니아	86,600	8,400	35,660	8,510	49,970	4,360
미시간	1,320	19,700	na	na	na	na
오리건	38,000	17,400	41,000	13,100	45,190	11,440
워싱턴	223,000	38,600	214,400	29,400	191,200	46,610
전체	348,920	84,100	291,060	51,010	286,360	62,410

자료: USDA(2020. 5.). Noncitrus Fruits and Nuts 2019 Summary.



# 3

## 미국의 체리 교역 동향

### 3.1. 세계 체리 교역 동향

- 주요국의 체리 수출 순위는 칠레, 미국, 터키 순임. 2019년 기준 칠레의 수출량은 2위국인 미국의 3배에 근접함. 칠레의 체리 수출량은 22만 톤, 미국 8만 1천 톤, 터키 8만 톤임.
- 2010년 초반까지는 미국과 터키의 수출이 많았으나 칠레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미국을 제치고 수출 1위 국가가 되었음.
- 칠레의 체리 수출이 급증한 해는 2018년인데, 이 해에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으로 중국은 미국산 체리 관세를 50%로 인상함. 이후 미국의 대중국 체리 수출이 급감함.
  - 4월 미국은 중국산 알루미늄과 철강의 관세를 인상함.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체리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함.
  - 미국이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인상하자 중국은 미국산 체리 관세를 50%로 인상함(2018년 7월).

- 칠레의 체리 수출이 급증한 해는 2018년인데, 이 해에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으로 중국은 미국산 체리 관세를 50%로 인상함. 이후 미국의 대중국 체리 수출이 급감함.

〈표 3-1〉 주요국 체리 수출 동향

단위: 톤, 백만 달러, 달러/kg

국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칠레	수출량	83,410	118,309	81,488	184,566	220,196	164.0%
	수출액	517	851	571	1,079	1,560	201.7%
	단가	6.20	7.19	7.01	5.85	7.08	14.2%
미국	수출량	74,223	72,380	106,656	83,972	81,153	9.3%
	수출액	427	455	604	500	478	11.9%
	단가	5.76	6.29	5.66	5.96	5.89	2.3%
터키	수출량	68,591	79,789	60,121	75,304	80,508	17.4%
	수출액	123	183	159	162	184	49.6%
	단가	1.79	2.29	2.65	2.15	2.28	27.4%
스페인	수출량	22,181	21,308	27,746	31,560	26,701	20.4%
	수출액	66	67	81	74	93	40.9%
	단가	2.97	3.13	2.90	2.34	3.50	17.8%

주: 증감률은 2015년 대비 2019년의 국가별 체리 수출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UN Comtrade Database.

- 체리 수입의 국별 순위는 중국, 러시아, 독일, 한국 순임. 2019년 중국은 19만 톤을 수입하여 2위 국인 러시아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양을 수입하며, 2018년을 기점으로 체리 수입이 급증함.
- 한국은 2011년 약 5천 톤의 체리를 수입하였으나, 2012년 한-미 FTA를 기점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2019년 기준 세계 4위의 체리 수입국이 되었음. 일본과 영국은 2010년 초만까지 수입이 많은 국가였으나, 점차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임.

〈표 3-2〉 주요국 체리 수입 동향

단위: 톤, 백만 달러, 달러/kg

국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중국	수입량	91,484	109,255	101,885	186,263	193,549	111.6%
	수입액	672	797	771	1,303	1,399	108.2%
	단가	7.35	7.29	7.57	7.00	7.23	-1.6%
러시아	수입량	62,428	57,608	61,605	82,024	74,718	19.7%
	수입액	71	85	95	117	129	81.7%
	단가	1.14	1.48	1.53	1.42	1.73	51.8%
독일	수입량	36,984	45,426	51,469	44,629	48,825	32.0%
	수입액	113	161	192	162	167	47.8%
	단가	3.05	3.55	3.74	3.64	3.41	11.8%
한국	수입량	12,578	13,805	17,648	18,067	15,856	26.1%
	수입액	126	125	160	163	137	8.7%
	단가	10.00	9.05	9.09	9.03	8.63	-13.7%
영국	수입량	18,350	17,019	16,026	15,155	13,356	-27.2%
	수입액	61	59	51	51	49	-19.7%
	단가	3.34	3.49	3.20	3.37	3.65	9.2%

주: 증감률은 2015년 대비 2019년의 국가별 체리 수입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UN Comtrade Database.

### 3.2. 미국의 체리 교역 동향

- 2019년 미국은 세계 시장에 81,153톤의 체리를 수출하였음. 이 중 캐나다에 26,954톤, 중국에 12,091톤, 한국에 11,769톤을 수출함.
- 일본의 미국산 체리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베트남의 수입 성장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일본은 2010년 초반까지 1만 톤 이상 수입하였으나, 2019년 3,964톤을 기록함. 베트남은 2003년 미국산 체리 수입 개시 이후 17년 만에 3,144톤까지 성장함.
- 2019년 기준 미국의 국가별 수출 단가는 한국이 8.37달러, 일본 8.19달러, 베트남 7.23달러, 중국 5.93달러, 캐나다 4.55달러로 한국으로 수출되는 체리 단가가 가장 높았고, 캐나다가 가장 낮았음.

〈표 3-3〉 미국의 체리 수출 동향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증감률(%)
캐나다	물량(톤)	24,012	22,891	31,731	26,811	26,954	33.2%	12.3%
	금액(천 달러)	113,655	108,554	138,031	120,768	122,549	25.7%	7.8%
중국	물량(톤)	10,892	11,801	22,662	13,550	12,091	14.9%	11.0%
	금액(천 달러)	65,265	72,964	121,646	81,847	71,691	15.0%	9.8%
한국	물량(톤)	15,210	12,467	16,121	15,471	11,769	14.5%	-22.6%
	금액(달러)	102,044	104,939	133,671	126,631	98,545	20.6%	-3.4%
일본	물량(톤)	4,666	4,870	5,541	3,289	3,964	4.9%	-15.0%
	금액(천 달러)	33,007	40,260	46,040	28,940	32,448	6.8%	-1.7%
베트남	물량(톤)	441	621	935	1,524	3,144	3.9%	612.9%
	금액(천 달러)	2,718	4,748	7,240	10,885	22,735	4.8%	736.5%
전체	물량(톤)	74,223	72,380	106,656	83,972	81,153	-	9.3%
	금액(천 달러)	427,294	455,120	604,094	500,458	477,744	-	11.8%

주: 증감률은 2015년 대비 2019년의 국가별 체리 수출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UN Comtrade Database.

○ 미국은 연간 만 톤 정도의 체리를 수입하고 있음. 2019년 미국은 칠레산 5,035톤, 캐나다산 3,657톤을 수입함. 2019년 국별 수입단가는 6달러대로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단가가 각각 6.91달러, 6.53달러로 비교적 높았고, 캐나다는 6.22달러로 낮은 수준이었음.

〈표 3-4〉 미국의 체리 수입 동향

단위: 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칠레	5,797	6,996	5,175	6,137	5,035	-13.1%
캐나다	7,059	5,134	4,919	4,947	3,657	-48.2%
아르헨티나	428	682	1,246	1,163	1,274	197.7%
전체	13,298	13,059	11,889	12,559	10,138	-23.8%

주: 증감률은 2015년 대비 2019년의 미국의 국가별 체리 수입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UN Comtrade Database.



# 4

## 미국 과일 산업 관련 정책<sup>2)</sup>

- 「2014년 농업법」(2014 Farm Bill)은 Title I 품목 프로그램에 따라 지불 가능한 농지에서 과일, 채소, 건조 두류(녹두와 가반조(garbanzo) 콩/대형 병아리콩 제외)에 대한 재배 제한을 유지함. 또한, 이전의 「농업법」(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과 마찬가지로, 「2014년 농업법」의 특화작물 지원조항은 Title X(원예), Title I(품목), Title III(무역), Title IV(영양), Title VII(연구) 등 법률 내에 포함됨.
- 이 중 많은 조항들이 국내 및 세계 시장에서 해당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특화작물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마케팅과 홍보, 데이터와 정보 수집, 식물 병해충과 질병 관리, 식품 안전교육,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과일과 채소를 포함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 등의 우대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음.
- 「2014년 농업법」에 따라 재승인 또는 확대 프로그램은 특화작물 블록 보조금(Specialty Crop Block Grant), 특화작물 연구 이니셔티브(Specialty Crops Research Initiative), 농민 시장 육성 프로그램(Farmers Market Promotion Program), 학교 급식용 신선한 과일과 채소 프로그램(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 등이 있음.

2) 위탁연구로 수행된 미국 체리 산업 관련 정책 연구(지성태 2020)를 참조함.

- 「2014년 농업법」에서 과일과 연관된 조항은 다음과 같음.

#### 4.1. 작물보험과 재난 지원(Crop Insurance and Disaster Assistance)

- 과일 재배는 항상 이상기후 등에 따른 생산과 단수상의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큼. 이에 임시(혹은 긴급) 연방 재난 지원 및 연방 작물보험을 통해 연방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짐.
- 미국 농무부의 위험관리국(Risk Management Agency: RMA)에서 과일과 목본 견과류를 포함한 다수의 농작물에 대한 작물보험정책을 수립함. 또한 RMA는 선정된 카운티에서 신규 보험 프로그램을 시판하기에 앞서 2~3년간 시험 운영함.
- 연방 작물보험은 파종 이전에 가입하여 농가의 실제 수확량이 사전에 정한 기준량 이하로 감소하면 이에 대해 보상함.
- 보험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영되지만 정부에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저렴한 가격에 보험을 구입할 수 있음.
- 미국 농무부의 농업서비스센터(Farm Service Agency: FSA)에서 비보험 작물재해지원 프로그램(Noninsured Crop Disaster Assistance Program: NAP)을 관리함.
- 연방 작물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과일과 목본 견과류 농가들이 자연 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고, 재고 손실이 발생하며, 파종을 하지 못한 경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 NAP를 통해 과일과 목본 견과류 농가에게 지원되는 금액의 수준은 당해 연도 자연재해 및 다른 지원 프로그램 가입 여부에 따라 결정됨.

- 「2014년 농업법」에 의거하여 작물보험 및 서비스 예외 품목에 대한 NAP의 보상범위 확대는 위험관리에 더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대상 품목의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가 있음.
-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연방 농업프로그램의 작물보험 등으로 위험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외에도 재해 지원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는 가뭄·홍수·냉해·토네이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보전프로그램(Emergency Conservation Program), 재해 부채 경감 프로그램(Disaster Debt Set-Aside Program), 긴급 농업 대출 프로그램(Emergency Farm Loan Program), 수목 지원 프로그램(Tree Assistance Program)도 신청할 수 있음.

#### 4.2. 유통명령제(Marketing Orders)

- 유통명령제는 미국 농무부의 농업 유통 서비스(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가 운영하는 제도로, 과일과 채소 시장의 불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목적임.
-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노력을 함. 업체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되, 연방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관리를 받게 됨.
  - 제품의 품질 표준 강화
  - 시장으로의 제품 공급 통제
  - 포장과 용기 표준화
  - 저장이 필요한 상품의 예비 저장 능력 확보
  - 생산, 마케팅 연구와 광고를 규범화

- 일단 유통명령제가 도입되면, 유통명령제가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에서 모든 개인과 업체가 지휘를 받게 됨. 특히, 수입은 이러한 유통명령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1937년 「농업 마케팅 협정법」(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에서 국내 유통명령제가 적용되는 품목을 수입할 경우 등급, 크기, 품질 혹은 숙성도와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예를 들어, 6월에서 익년 3월 사이에 남부 플로리다에서 생산되는 과일 중 연방 유통명령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아보카도가 유일함. 그리고 선적 용기의 크기, 용량과 무게 외에도 상품의 등급, 크기, 품질, 숙성도와 포장 기준을 규범화함. 수입 아보카도에도 최소 등급, 크기, 숙성도 기준이 적용됨.

〈표 4-1〉 미국 과일 산업 정책 사례1

〈사례1: 타트 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품목: 미시간, 뉴욕, 펜실베이니아, 오리건, 유타, 워싱턴, 위스콘신에서 생산된 타트 체리</li> <li>○ 배송 시기: 7월 1일 ~ 익년 6월 30일</li> <li>○ 회계 연도: 10월 1일 ~ 익년 9월 30일</li> <li>○ 생산 지역: 미시간, 뉴욕, 펜실베이니아, 오리건, 유타, 워싱턴, 위스콘신</li> </ul> <p>(명령 권한과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명령제는 1996년 9월 24일 발효되었고, 2012년 6월 7일 공식적인 규정이 제정됨.</li> <li>○ 품질 규정: 등급, 크기, 품질, 숙성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없음.</li> <li>○ 연구와 홍보: 유료 광고, 생산 및 가공 연구, 시장 조사와 개발, 홍보 활동을 허가하며, 현재 활발하게 진행됨.</li> <li>○ 생산량 조절: 체리 공급량이 많은 시기에 시장격리의 형태로 생산량 조절 권한이 부여됨. 비축 체리를 전환 프로그램에 사용하거나, 수출하거나, 다음 해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이월시킬 수도 있음. 위원회는 최적의 공급량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료로 비축 체리의 출하를 요구할 수 있음.</li> <li>○ 위원회 구성: 체리 산업 행정 위원회(Cherry Industry Administrative Board)는 생산자 6명, 유통업자 8명, 생산-유통업자 3명, 일반인 1명을 포함한 총 18명으로 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은 7월 1일부터 3년의 임기 동안 활동함. 위원의 약 3분의 1을 매년 선출함. 생산자와 유통업자 위원은 회의와 우편 투표로 선출됨.</li> </ul> </li> <li>○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농무부는 7개 주에서 생산한 타트 체리에 대한 유통명령제를 발동하여 2019/20년산 물량 조절을 예고함.</li> <li>- 유통명령제에 따라 타트체리 산업과 체리산업 행정위원회는 미국 농무부의 감독하에 생산 및 마케팅 조사, 홍보 계획 및 물량을 조절할 수 있음.</li> <li>- 미시간, 뉴욕, 펜실베이니아, 오리건, 유타, 워싱턴, 위스콘신 주에서 재배한 타트 체리의 유통을 규제함으로써 수확 연도 생산량 중 67%의 자율 비율과 33%의 제한 비율이 설정됨.</li> <li>- 위원회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유통물량 규제를 권고함. 국내의 파이용 원료 시장, 냉동한 타트 체리 시장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시장에 자율 비율 체리를 공급할 수 있음. 제한 비율 체리는 수출용 판매나 신제품 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이나 저장용 목적으로 과수원이나 가공공장에서 소비되어야 함.</li> <li>- 비축 체리는 업계의 출하 요청이 있어야 출하할 수 있음. 유통명령제의 최종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시됨.</li> </ul> </li> </ul>

자료: 미국 농무성 농업유통서비스(<http://www.ams.usda.gov/rules-regulations/moa/903-tart-cherries>).

〈표 4-2〉 미국 과일 산업 정책 사례2

〈사례2: 스위트 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품목: 워싱턴 주의 지정된 카운티에서 생산된 스위트 체리</li> <li>○ 배송 시기: 6월~8월</li> <li>○ 회계 연도: 4월 1일~익년 3월 31일</li> <li>○ 생산 지역: 워싱턴 주의 오키나건(Okanogan), 쉘랜(Chelan), 키티타스(Kittitas), 야키모(Yakima), 클릭키탓(Klickitat) 와 동부 워싱턴 지역</li> </ul> <p>〈명령 권한과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 규정: 선적지에서 소비지까지의 단체리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등급, 크기, 품질, 숙성도를 규정함.</li> <li>○ 조사와 홍보: 마케팅 조사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데,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없음.</li> <li>○ 표기, 포장 및 용기 규정: 시장에 출하되는 스위트 체리 용기의 표기나 라벨링, 크기, 용량, 무게 등에 대해 규정함.</li> <li>○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싱턴 체리 유통 위원회(Washington Cherry Marketing Committee)는 지역단위로 유통명령제를 발동함. 위원회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10명의 위원은 생산자(1구역 4명, 2구역 6명)이고, 6명은 유통업자(1구역 3명, 2구역 3명)임.</li> <li>- 위원들은 4월 1일부터 2년의 임기 동안 활동함. 위원과 대리인의 2분의 1을 매년 선출함.</li> <li>- 생산자 위원은 생산자 공천 회의에서, 유통업자 위원은 유통업자 공천 회의에서 임명함.</li> </ul> </li> </ul>

자료: 미국 농무성 농업유통서비스(<http://www.ams.usda.gov/rules-regulations/moa/903-tart-cherries>).

### 4.3. 국내 급식 프로그램(Domestic Feeding Programs)

- 매년 10억 파운드 이상의 가공되거나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미국 농무부에 조달되고, 국립 학교 점심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 긴급 식량 지원 프로그램(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과 다양한 재난과 보충 급식 프로그램(various disaster and supplemental feeding programs) 등, 다수의 국내 급식과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유통됨.
- 재원 대부분은 가공된 과일과 채소 구입에 사용되지만, 신선 식품도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됨. 이와 같은 구매를 통해 농업 생산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저소득층과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영양식품을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됨.
- 신선 과일과 채소 프로그램(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 FFVP)을 통해 식사 시간 외에 학생들에게 먹일 신선 식품 구매자금을 지원함.
  - 「2014년 농업법」에서 2014~2015년 학년도 신선 과일과 채소 프로그램으로 통조

림, 냉동 혹은 건조과일과 채소를 포함하는 시범프로그램이 승인됨.

- 또 다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는 국방부의 유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USDA Foods 기금으로 학교급식에 사용할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음.
- 「2014년 농업법」을 통해 최대 8개 주의 학교가 급식용 가공되지 않은 신선 과일과 채소를 복수의 공급자로부터 지리적 선호도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시범프로그램이 승인됨.

○ FFVP는 학교급식을 통해 다양한 신선 과일과 채소를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신선 과일과 채소를 건강한 간식으로 소비하도록 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

- 결국,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더욱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접할 수 있고, 그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전한 식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음.

○ 학교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국립 학교 급식법」(National School Lunch Act) 제19조에서 무료 및 학비 감면 등록자 수가 가장 많은 학교에 FFVP 참여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함.

- 이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정기적으로 섭취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프로그램 혜택을 보장해 주기 목적임.
- 무료 및 학비 감면 등록자 수 기준으로 선정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10월에 보고된 관련 자료를 활용함.
-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주의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주기 위해 또는 지리적으로 안배하기 위해 일관된 기준을 유지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 1) 초등학교이어야 하고,
  - 2) 무상 및 학비 감면 학생 등록자 수가 많아야 하고,
  - 3) 국립 학교 급식 프로그램(NSLP)에 참여해야 하고,
  - 4) 매년 FFVP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 주 정부에서 선정한 모든 학교의 등록정보를 기초로 살펴보면, 배정된 예산은 총 696,220달러이고, 이는 7월과 10월 2차례 걸쳐 할당됨.
  - 이 중 21,000달러는 주 정부의 행정비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675,220달러가 순수하게 FFVP 비용으로 지급됨. 학생 1인당 50~75달러가 지급되는 셈임.

#### 4.4. 무역 촉진 프로그램(Trade Promotion Programs)

- 미국 농무부의 해외농업서비스(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가 관리하는 시장 접근 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 MAP)에서는 농무부의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의 기금을 이용하여 생산자, 수출업자, 민간기업과 기타 무역조직의 소비자 홍보, 시장조사, 기술지원, 농산물 무역서비스 등의 활동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
- MAP는 사실상 자국 농산물과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소비 광고와 홍보, 판매 시 시연, 박람회와 전시회 참가, 시장 조사와 기술 지원 등의 활동에 대해 자격 요건을 갖춘 조직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함.
  - 포괄적인 마케팅과 홍보에 MAP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이 최소 10%이고, 브랜드 상품 홍보는 자부담 비율이 50%임.
- FAS는 매년 연방 관보에 MAP 운영 기간과 관련 규정을 발표함. 신청은 통합 수출 전략(Unified Export Strategy: UES)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선정된 조직은 전략적으로 작성된 하나의 제안서로 USDA에서 운영하는 다수의 시장 개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음. FAS는 제안서상의 장기전략 수립 및 기대성과 등을 평가하여 해당 조직에 자금을 지원함.
- 2015년 약 5,200만 달러의 MAP 자금이 과일과 목본 견과류 산업에 직접 투입되었고, 이는 해당 프로그램 총예산인 17,320만 달러의 약 30%를 차지함. 다른 무역협회에 추가로 투입하면 과일과 목본 견과류 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임.

○ 2020년 MAP 예산으로 17,685만 달러가 배정됨.

- 체리 주산지인 캘리포니아의 농산물 수출 협의회(California Agricultural Export Council) 98만 달러
- 체리 마케팅과 연구 이사회(California Cherry Marketing and Research Board) 49만 달러
- 신선 과일 협회(California Fresh Fruit Association) 39만 달러
- 워싱턴 주의 과일 위원회(Washington State Fruit Commission) 167만 달러
- 서부 농산물 무역 협회(Western U.S. Agricultural Trade Association)에 814만 달러가 배정됨.

○ 특화작물을 위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for Specialty Crops: TASC) 프로그램은 「2002년 농업 안정과 농촌 투자법」(2002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에서 소개되었음.

- 특화작물 시장을 개방·유지·확대하기 위한 목적임. TASC는 미국 수출업자들이 특화작물의 수출을 막거나 위협하는 식물검역이나 그 외의 기술장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됨.
- 대상 품목은 밀, 사료작물, 유지작물, 면화, 쌀, 땅콩, 설탕과 담배 등을 제외한 모든 재배 식물과 미국산 농작물을 포함.

#### 4.5. 시장 조정 프로그램(Market Facilitation Program)

○ 시장 조정 프로그램(Market Facilitation Program: MFP)은 기존 수출시장을 위협하는 불공정한 보복관세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함. 비특화작물, 낙농, 양돈, 특화작물 생산자도 수혜대상이 됨.



- 비특화작물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연도에 고시한 MFP 대상 작목의 농가 총 생산면적에 관한 카운티의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함.
  - 에이커당 지급액은 해당 연도 대상 품목에 따라 상이함.
  - 해당 연도 지급대상 면적은 총 생산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카운티의 지급단가는 품목에 따라, 무역 보복의 정도에 따라 에이커당 15달러에서 150달러로 그 범위가 매우 큼.
  
- 카운티별 지급단가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는 품목은, 알팔파 건초, 보리, 카놀라, 옥수수, 크램베(crambe), 건조 콩, 건조 완두, 아마씨, 렌틸콩, 장립 및 증립 쌀, 기장, 겨자씨, 귀리, 팥콩, 유채씨, 호밀, 잇꽃(safflower), 참깨, 작거나 큰 병아리콩, 수수, 대두, 해바라기씨, 온대 자포니카 쌀, 라이밀, 고지대 목화, 밀 등임. 유제품, 돼지, 특화작물 등의 지급단가는 MFP 홈페이지(farmers.gov/mfp)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4-3〉 미국 과일 산업 정책 사례3**

〈사례3: 스위트 체리〉
○ 2018년 9월 21일 미국 농무부는 외국의 부당한 무역보복에 따른 체리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스위트 체리를 시장 조정 프로그램(Market Facilitation Program: MFP) 대상 품목에 추가한다고 밝힘.
○ 이는 자국의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단기적인 전략이며, 수출 위축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지원은 자격 요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수확 이후에 이루어지고, 지원액은 MFP 지급단가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총생산량의 50%에 대해 지원됨.
○ 신선한 스위트 체리의 MFP 지급단가는 파운드당 0.16달러이고, 개별 농가 혹은 법인에 대한 최대 지원액은 12만 5천 달러임. -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 생산물에 대한 소유지분을 갖고 있어야 하고, 영농활동을 해야 하며, 과세연도 2014~2016년의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 9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함. 또한 생산환경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자료: 미국 농무성 MFP(<https://www.usda.gov/media/press-releases/2018/09/21/usda-adds-shelled-almonds-and-fresh-sweet-cherry-market>).

#### 4.6. 연구와 홍보 위원회(Research and Promotion Board)

- 연방정부가 승인한 연구와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품목별 산업 종사자가 자신의 전문성과 자원을 동원하여 농산물과 가공품 시장의 개선, 유지, 발전을 위한 영양, 연구, 판매와 소비 확대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음.
  
- AMS의 감독하에, 특정 업체에서 지명하고 농무부 장관이 임명한 회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나 협의회에 의해 프로그램이 운영됨.
  - 이사회 회원은 공공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생산자, 취급업자, 수입업자와 가공업자가 포함됨.
  - 다양한 상품산업을 지원하는 20개 이상의 국가급 연구와 홍보 프로그램이 있음.

# 5

## 한국 체리 생산 현황 및 경쟁력<sup>3)</sup>

### 5.1. 한국 체리 생산 현황

#### 5.1.1. 재배 현황

- 한국의 체리 재배는 1908년 권업모범장에서 외국 품종을 도입하여 전시포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음. 1920년대부터 일본인들에 의해 일반 재배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1984년 전국에 걸쳐 무분별하게 많은 묘목들이 심어졌으나 부적합지 재식 및 재배기술 부족 등으로 나무 고사 및 낮은 생산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실패하였음.
- 한국 체리 재배실태에 관한 최초 보고는 1989년에 이루어졌음. 재배면적은 30ha, 재배 농가는 137호, 생산량은 74.2톤으로 보고되었음. 이후 2003년에는 50ha에 300톤으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있음.
- 2003년에 DDA(Doha Development Agenda) 대응 작물로 체리가 선정되면서 체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함. 2000년대 중반 이후 재배면적과 경영체 수(농가

3) 위탁연구로 수행된 한국 체리 산업 동향 및 경쟁력(윤익구 2020)을 참조함.

수) 및 생산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매우 적어 주요 과수 작목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재배면적(ha): 50('03) → 150('12) → 277('15) → 688('19)
- 생산량(톤): 300('03) → 450('12) → 500('15) → 800('19)

○ 2000년대 중반 이후 재식면적이 증가되었고 전체 재배면적의 59.7%가 2015년 이후 재식된 어린나무로 향후 이들의 성목화로 생산량 급증이 예상됨.

〈표 5-1〉 국내 체리 생산 경영체 등록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경영체 수(건)	1,402	1,727	2,376	3,024	3,738	166.6%
면적(ha)	277.4	336.1	475.4	584.6	687.9	148.0%
추정생산량(톤)	500	550	600	700	800	60.0%

주: 증감률은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

○ 2019년 지역별 재배면적은 경북·대구가 169.4ha로 가장 많고 충남(세종, 대전 포함)이 106.8ha, 경남(부산 포함)이 77.2ha로 다음을 차지함.

- 기존 재배 주산지는 1920년대부터 재배하기 시작한 경북 경주와 대구임.
- 2000년대 중반에는 경기 화성과 평택, 경북 김천 등에서 재배하기 시작함.
- 비교적 최근에는 충북 영동, 충남 예산, 전북 고창과 정읍, 전남 곡성, 경북 포항 및 상주 등에서 신규 과원이 조성되었음.

○ 아직 한국에서는 주요 재배지역이라 하여도 경주시(40.8ha)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30ha 이하로 규모 면에서 매우 미약한 수준임.

○ 체리의 수확기간은 경주시에서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약 29일이었으며, 전국의 수확기간은 5월 20일부터(순천 기준) 7월 4일(철원 기준)까지 약 45일 정도로 파악됨.

○ 한국은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 ‘좌등금’(조중생종, 약 45% 점유)을 비롯하여 약 20여 품종이 생산현장에 보급되었음. 이 중 가장 일찍 수확되는 품종은 ‘조대과’, ‘스조 모라이훼게테’, ‘제왕’ 등이고 가장 늦게 수확하는 품종은 ‘레지나’, ‘레인니어’ 및 ‘라핀’ 등임.

○ 한국은 7, 8월이 장마기로 늦게 익는 과일(만숙종)의 성숙기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강우로 인한 열매 터짐, 일조량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 및 다습에 의한 병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만숙종 보급에 제한 요인이 되고 있음.

〈표 5-2〉 국내 지역별 체리 재배 현황(2019년)

지역	면적(ha)	경영체 수(건)	주요 시·군(ha)
계	687.9	3,762	
경기, 인천, 서울	75.7	417	평택(22.6), 안성(11.5), 화성(8.3)
강원	36.9	234	양양(4.9), 삼척(4.5), 정선(4.4)
충북	82.9	435	영동(20.5), 청주(16.2), 음성(11.5)
충남, 대전, 세종	106.8	539	천안(16.1), 예산(14.9), 세종(12.8)
전북	57.0	275	정읍(11.8), 고창(11.2), 순창(6.9)
전남, 광주	79.8	409	곡성(11.1), 담양(10.4), 장성(9.9)
경북, 대구, 울산	169.4	922	경주(40.8), 포항(26.6), 상주(13.7)
경남, 부산	77.2	511	하동(9.3), 창녕(9.1), 진주(6.5)
제주	2.3	20	제주(1.6), 서귀포(0.6)

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

### 5.1.2. 경영규모

○ 2019년 체리 경영체당 체리 재배면적은 0.184ha(552평)로 경영면적이 매우 작고 또한 1ha 이상 경영체는 전체 경영체의 1.7%에 불과하여 전업농 비율이 매우 낮았음.

○ 체리재배 경영체 수는 1,402건('15)에서 3,738건('19)로 약 2.7배 증가 추세

- 이는 국내 과일 시장에서 체리 소비가 증가(체리 구매액 지수: ('10~'14) 100 → ('15~'19) 119)<sup>4)</sup>함에 따라 신규 농업 경영체들의 체리 재식률이 높고 기존 과수 재배 농가들이 대체 작목으로 체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대부분 체리를 시범적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 체리 재배 경영체 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경영체당 평균 재배면적은 0.198ha('15)에서 0.184ha('19)로 오히려 감소

○ 체리의 경영체 당 경지면적은 주요 과수인 사과 0.554ha(1,660평), 배 0.425ha(1,270평), 복숭아 0.330ha(990평) 및 포도 0.358ha(1,074평) 등에 비해 매우 작았으며 1ha 이상 경영체 점유율에서도 1.7%로 사과 17.2%, 복숭아 6.5%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음.

〈표 5-3〉 국내 체리 경영체당 경영규모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15/2019 차이
경영규모/경영체(ha)	0.198	0.195	0.200	0.193	0.184	-0.014
1ha 이상 경영체 수	35	33	43	51	63	28
1ha 이상 경영체 점유비(%)	2.5	1.9	1.8	1.7	1.7	-0.8

주: 경영규모는 〈표 5-1〉의 경영체 수 및 면적을 근거함.  
 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

〈표 5-4〉 과종별 경영체당 경영규모 현황(2019년)

구분	체리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경영규모/경영체(ha)	0.184	0.554	0.425	0.330	0.358
전체 경영체 수	3,738	62,918	27,617	60,123	34,465
1ha 이상 경영체 수	63	10,850	3,314	3,883	1,904
1ha 이상 경영체 점유비(%)	1.7	17.2	12.0	6.5	5.5

주: 경영규모는 〈표 5-1〉의 경영체 수 및 면적을 근거함.  
 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

4) 농촌진흥청. 2020 농식품소비트렌드 발표대회 중, “농식품 소비, 10년을 돌아보다” 자료 참조.

### 5.1.3. 소득 및 경영비

○ 체리의 10a당 총수입(조수입)은 6,676,835원으로 포도 7,109,419원보다는 낮았으나 사과, 배, 복숭아보다는 높았음. 그러나 10a당 체리의 순소득은 2,915,548원으로 소득 면에서 사과의 96%로 비슷하였으나 포도의 59%, 배의 82% 및 복숭아의 84%로 순소득이 낮았음.

○ 체리의 소득률은 43.7%로 사과(54.5%), 배(57.3%), 복숭아(66.4%) 및 포도(69.2%)에 비하여 낮았음.

- 체리의 소득과 소득률이 낮은 원인은 경영비가 56.3%로 사과 45.4%, 배 42.7%, 복숭아 33.6% 및 포도 30.7%에 비하여 월등히 높기 때문임.
- 체리는 국내에서 경영형태 및 기술력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아 해에 따른 작황 및 경영체의 기술력에 따라 소득 편차가 심함.

〈표 5-5〉 과종별 소득 분석

기준: 연 1기작 / 10a

작목	수량(kg)	총수입(원)	경영비(원)	소득(원)	소득률(%)
체리	558	6,676,835	3,761,287	2,915,548	43.7
사과	2,173	5,574,095	2,534,365	3,039,730	54.5
배	2,831	6,176,716	2,637,689	3,539,027	57.3
복숭아	1,436	5,210,418	1,752,010	3,458,408	66.4
포도	1,629	7,109,419	2,188,218	4,921,201	69.2

자료: 2018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사과, 배, 복숭아, 포도 노지과수); 2018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집(체리-경북기준).

○ 체리의 세부 품목별 경영비를 보면 전체 경영비 중 사과와 복숭아에 비해 고용노동비와 유기질 비료비가 높았던 반면 농약비와 기타재료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고용노동비는 경영비의 50.7%로, 사과 20.9%와 복숭아 14.8%에 비하여 높아 고용노동비가 경영비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체리의 소득 및 소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확량을 높이고, 수확과 선별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고용 노동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도입과 경영개선이 동시에 필요함.

- 체리는 과일의 수확 기간이 짧고, 과일의 저장성이 약해 전체 노동시간 중 수확, 선별 및 포장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력 비중이 높아 고용노동력 의존도가 매우 높은 과수 작물임.

○ 체리의 유통은 공판장을 경유하기보다는 직판 또는 택배에 의존한 개별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음. 시장 규모가 작고, 공판장 판매에 비해 높은 가격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임. 국산 체리는 공식적인 가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 체리와 비교하기 어려우나, 공판장을 경유하는 경우 수입 체리에 대비 국산 프리미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5.2. 한국산과 미국산 체리 경쟁력 비교

### 5.2.1. 미국산 체리 수입 동향

- 2006년까지 신선체리 수입은 1,292톤으로 가공체리의 1,490톤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후 소득수준 향상과 고급 과일 선호 및 소비 다양화로 인하여 신선 체리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 한국의 체리 수입은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2011년 4,982톤에서 2012년 9,454톤으로 증가).
  - 체리 수입량은 2012년 9,454톤에서 2019년 15,856톤으로 2012년 대비 67.7% 증가함.
  - 체리 수입액은 2012년 82,711천 달러에서 2019년 136,758천 달러로 2012년 대비 65.3% 증가함.
  - 체리 수입단가는 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물량보다는 수출국의 작황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음.



- 한-미 FTA와 한-칠레 FTA의 발효로 두 나라에서 수입되는 체리는 관세가 철폐되었음.
  - 미국은 FTA가 발효된 2012년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음.
  - 칠레는 FTA 발효 이후 매년 관세율이 감축되다 2014년에 완전히 철폐되었으나 검역의 문제로 수입이 제한되어 왔음. 2016년 1월 수입금지가 해제된 이후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5-6〉 한국의 신선체리 수입량 및 수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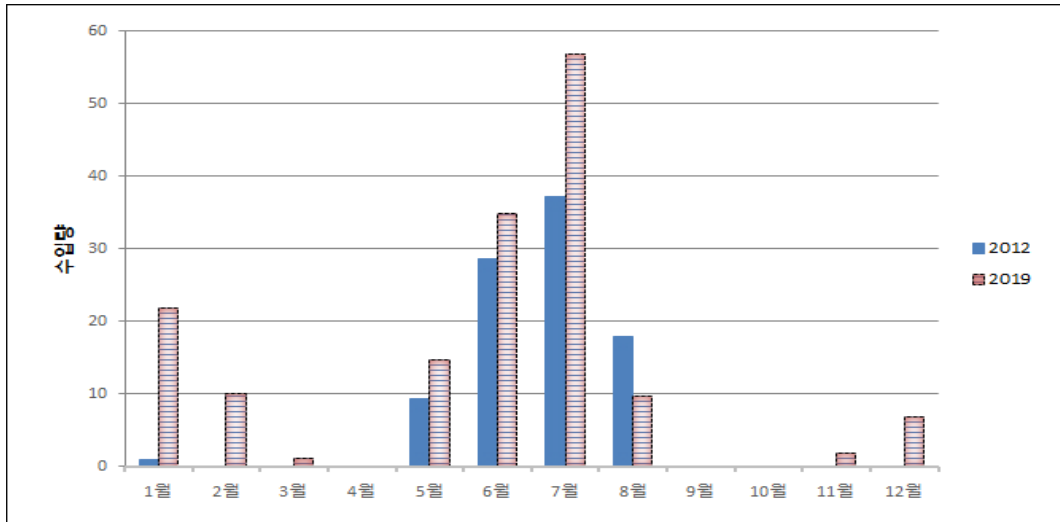
구분	2012	2015	2017	2019
수입량(톤)	9,454	12,578	17,648	15,856
수입액(천 달러)	82,711	125,801	160,405	136,758
단가(달러/kg)	8.7	10.0	9.1	8.6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kati.net).

- 체리 수입 시기는 하절기(5, 6, 7, 8월)와 동절기(11, 12, 1, 2월)로 구분되고 4, 9, 10월에는 수입되지 않음.
  - 이는 주요 수입국인 미국과 칠레의 계절이 달라 한국의 하절기에는 미국, 동절기에는 칠레에서 수입되기 때문임.
  - 한국의 체리 출하 시기는 5월 말에서 7월까지로 하절기 체리 수입 시기와 겹침.
- 시기별 수입량은 하절기가 많으나 하절기 수입량 점유비는 2012년 98.7% 대비 2019년은 73.2%로 동절기 수입량 점유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시기별 수입단가는 각 시즌(하절기, 동절기) 초인 5월과 12월이 높고 각 시즌 후반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며 하절기에 비하여 동절기가 약간 높은 경향임.
  - 하절기 수입단가는 2012년과 2019년 사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동절기의 경우 2012년에 비하여 2019년에 더 낮았는데 이는 주요 수입원이 호주산에서 가격이 싼 칠레산으로 대체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그림 5-1〉 수입 체리 월별 동향 비교

단위: 백 톤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kati.net).

〈표 5-7〉 한국의 월별 체리 수입 동향 비교

구분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입량 (백톤)	2012	1.0	0.1	-	-	9.5	28.7	37.2	17.9	-	-	-	0.2
	2019	21.9	10.2	1.2	-	14.7	34.9	56.9	9.7	-	-	2.0	7.0
점유율 (%)	2012	1.0	0.1	-	-	10.0	30.4	39.4	18.9	-	-	-	0.3
	2019	13.8	6.5	0.8	-	9.2	22.0	35.9	6.1	-	-	1.2	4.4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kati.net).

〈표 5-8〉 한국의 월별 체리 수입액 및 단가 비교

구분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입액 (십만\$)	2012	1.3	0.1	-	-	13.2	27.9	28.0	11.8	-	-	-	0.4
	2019	16.6	7.9	1.1	-	18.9	33.7	41.2	7.1	-	-	2.9	7.5
단가 (\$)	2012	13.3	12.3	-	-	14.0	9.7	7.5	6.6	-	-	-	16.5
	2019	7.6	7.8	8.8	-	12.9	9.6	7.2	7.3	-	-	14.5	10.7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kati.net).

○ 한국에 가장 많이 체리를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2019년 미국산 수입량은 11,507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72.6%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96.0%에 비해서는 수입국이 다변화되고 있는 경향임.

- 2017년부터 칠레산 체리가 수입되어 2019년 수입량은 4,155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26.2%를 차지하였음.

○ 한국은 캐나다 다음으로 미국산 체리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는 미국산 체리 수입량이 가장 많음.

- 미국산 체리에 대한 아시아국 수입 비중은 60.5%(2014~2015년)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미국의 시장공략이 더욱 공격적일 것으로 예상됨.

○ 체리의 최대 생산국인 터키는 그동안 검역의 문제로 한국에 수출이 제한되어 있었음. 그러나 2019년 검역 문제가 해결되면서 수출이 개시되었음. 터키로부터의 체리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최대 체리 생산국이라는 잠재력이 있어 터키산 체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5-9〉 한국의 국가별 체리 수입 동향

단위: 톤, 백만 \$

국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입량 비중(%)
뉴질랜드	수입량	173.56	281.54	175.577	118.806	71.814	0.5
	수입액	2.17	3.19	2.14	1.32	0.85	
미국	수입량	12,075.71	12,387.41	16,021.78	14,444.09	11,507.7	72.6
	수입액	119.85	109.95	145.18	132.02	100.22	
우즈 베키스탄	수입량	36.36	150.5	160.63	430.749	113.653	0.7
	수입액	0.15	0.54	0.44	2.25	0.65	
호주	수입량	297.184	310.227	93.339	91.176	13.11	0.1
	수입액	3.70	3.31	1.09	0.83	0.13	
칠레	수입량	-	689.88	1,209.462	2,987.291	4,155.268	26.2
	수입액	0.00	8.16	11.68	26.71	34.96	
터키	수입량	-	-	-	-	0.01	-
	수입액	-	-	-	-	-	
계	수입량	12,582.82	13,819.55	17,660.79	18,072.12	15,861.55	100
	수입액	125.87	125.14	160.53	163.14	136.81	

주: 수입량 비중은 2019년 기준임.

자료: UN Comtrade Database.

### 5.2.2. 국산과 수입 체리 품질 비교

○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체리 과실 품질과 국산 체리 과실 품질을 비교해보면 우선 수입 체리의 주품종은 ‘빙’, ‘코랄 샴페인’으로 암적색 체리이며 국산 체리의 주품종은 ‘좌등금’, ‘향하금’ 등 황적색 체리임. 따라서 품종에 따른 과실 특성 및 품질에 차이가 있음.

- 수입산 체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빙’, ‘코랄 샴페인’과 같이 미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의 경우 강우에 의한 열과 발생에 취약함.
- 강우량이 많은 한국 기후에서 재배 시 상품과를 생산하기가 매우 어려움.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 국내 기후에 맞는 일본계 황적색 계통 체리 ‘좌등금’, ‘향하금’ 등을 주로 재배함.
- 수입 체리 품종의 경우 한국 주 재배품종에 비해 과중이 크고 과육이 단단한 편임. ‘좌등금’, ‘향하금’은 비교적 과육이 부드럽고 산미가 있어 새콤달콤한 식미가 특징임.

〈표 5-10〉 수입 체리 유통 과실 특성 평가 결과(2015~2020년)

일시	원산지	품종명	과중(g)	당도(°Bx)
'15. 5. 27.	미국(CA)	코랄 샴페인	10.6	19.7
'16. 5. 10.			11.7	18.6
'20. 5. 29.			9.9	18.1
평균			10.7	18.8
'15. 6. 1.	미국(CA)	빙	11.6	21.4
'16. 5. 24.			11.5	19.1
'20. 6. 4.			9.9	22.7
평균			11.0	21.1

자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험연구 보고서(2016).

〈표 5-11〉 지역별 국내산 체리 유통 과실 특성 평가 결과(2018년)

품종명	재배지	과중(g)	당도(°Bx)
좌등금	완주(원예원)	8.9	24.7
	창녕	9.0	21.1
	경주	6.5	20.8
평균		8.1	22.2
향하금	완주(원예원)	8.0	19.7
	창녕	7.2	24.2
	경주	7.5	20.0
평균		7.6	21.3

자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내부자료(2018).

○ 수입과 국산 체리의 식미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는 외관은 수입이, 식미는 국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시기: 2011. 6. 20. ~ 30.
- 조사 품종: 수입 ‘빙’, 국산 ‘좌등금’
- 설문 대상: 주부, 학생, 회사원, 농업인 등 485명
- 수입 체리 ‘빙’과 국내 생산 ‘좌등금’ 선호도 조사 결과

〈표 5-12〉 수입 체리 품종 ‘빙’과 국내 체리 품종 ‘좌등금’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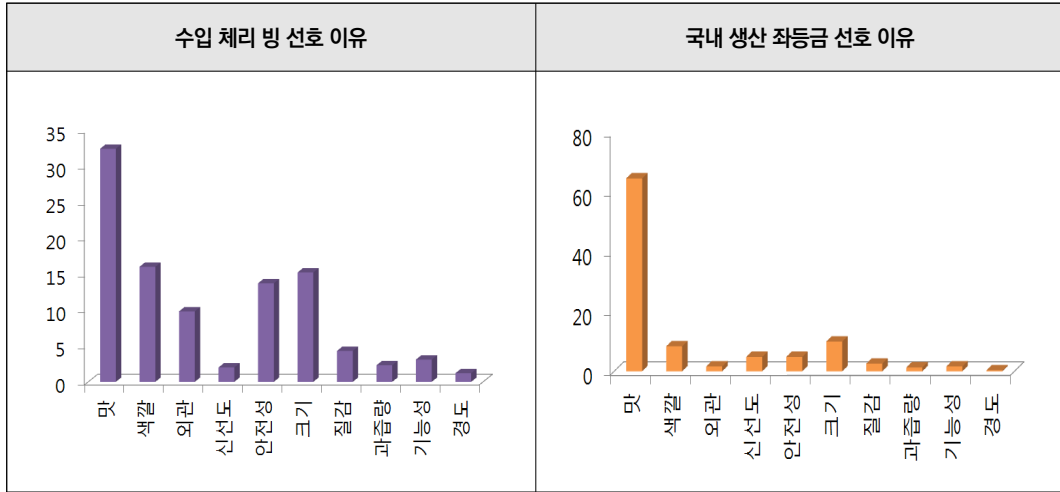
단위: 명

품종	외관상 선호도			시식 후 선호도		
	계(%)	남	여	계(%)	남	여
빙	268(56.2)	105	163	149(31.8)	56	93
좌등금	209(43.8)	83	126	319(68.2)	125	194

자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험연구 보고서(2011).

〈그림 5-2〉 국내 소비자의 수입 품종 ‘빙’과 국내 품종 ‘좌등금’ 선호도

단위: %



자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험연구 보고서(2011).

### 5.3. 한국 체리 재배의 문제점

#### ○ 재배면적과 경영규모의 영세성

- 체리는 재배면적이 688ha(2019년)로 사과(33,000ha)의 1/48, 복숭아(20,600ha)의 1/30 정도의 매우 소면적 과수임.
- 경영체당 평균 경영규모가 552평으로 매우 영세하고 전업 경영체라 할 수 있는 1ha(3,000평) 이상 경영체가 전체의 1.7%에 불과함.
- 경영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생산자의 적극적 경영 의지가 약해 재배기술의 현장 적용률이 낮음.
- 국내산 체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국내 소비량의 약 4.8%(2019년)에 불과하여 국내산 체리에 대한 시장 및 소비자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

#### ○ 부적합지 재식

- 체리는 온대과수임에도 아열대 기후권에 재식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아열대 기후권에서는 저온요구도가 충족되지 않아 발아지연 등의 생육 불량과 꽃눈 형성(flower bud formation) 및 결실(fruiting)이 불량하여 생산성이 낮고, 쌍자와 같은 기형과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음.

#### ○ 재배기술체계 미확립

- 재식 초기 나무 모양 구성이 나쁘면 열매가지(fruiting shoot) 배치 지연으로 인한 결실 공백기가 길어(5~6년) 과일 수확을 통한 소득 회수가 늦어짐.
- 나무 심는 간격은 나무 모양, 대목 종류, 품종 및 땅의 비옥도 등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원 개원 시 이를 무시하고 계획 없이 좁게 심는 사례가 많아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균형이 맞지 않은 나무가 많음.
- 한국 여름철 강우량이 많아 나무의 영양생장이 강하기 때문에 밀식재배는 많은 관리 노력과 기술이 필요함.

#### ○ 품질 향상을 위한 나무 관리 및 결실 관리 기술 적용률 낮음.

- 광 환경 개선을 위한 여름철 나무 관리(순지르기, 여름철 가지치기, 유인) 미흡.
- 결실 관리(꽃눈숙기, 열매숙기)를 하는 경영체 적음.

#### ○ 열매 터짐(열과: cracking) 방지를 위한 비가림시설 보급률 낮음.

- 성숙기 강우에 의해 열매 터짐 현상이 많이 발생함.
- 이러한 열매 터짐 현상은 성숙기 강우 차단(비가림)재배로 경감할 수 있으나, 한국의 비가림 재배시설 보급률은 15% 정도로 추정됨.
- 비가림에 대한 표준시설 기준이 없고, 나무 키가 높은 경우 시설비용이 과다 소요되며, 시설에 적합한 나무 모양 등의 관리가 잘 안 됨.

#### ○ 과일 생산기간 짧고, 수확 후 선별 및 상품 포장 관리 미흡.

- 과일 생산기간에 있어 주 재배지인 경주는 약 29일이고, 전국으로 보면 약 45일(순천

→철원)이지만 경기, 강원 북부는 경영체가 적고 생산량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생산기간은 40일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경영체가 손작업 선별에 의존함. 껍질이 얇은 과일 특성상 손으로 과일을 만지고 던지면 과일 껍질이 압상(壓傷)을 받아 유통과정 중 과일 손상률이 높아짐.
- 저온 유통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저장 및 수송성이 약한 과일 특성상 유통 중 과일 손상률이 타 과실보다 높음.

#### 5.4. 시사점

- 우리나라 체리는 맛과 당도면에서 소비자 평가가 좋으나, 외관에서는 미국산에 비해 열위에 있음. 체리의 수확시기가 하계 체리의 수입시기와 겹쳐 시장에서 경합관계 형성됨.
- 우리나라는 기후환경이 체리 재배에 적합하지 않고, 품종과 재배기술 확립이 부족하여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가의 규모가 영세함.
- 국산 체리의 유통은 직판, 택배 판매 등에 의존하고 있어 대량 유통채널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며, 국산 체리가격은 공판장 출하의 경우 수입 체리 도매가격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임.
- 체리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확립을 통해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체리의 생산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6

## 요약 및 시사점

-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과일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음. 국내 과일 생산이 정체된 반면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과일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체리의 수입 증가율은 전체 과일의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음.
  - 2019년 체리 수입액은 수입 과실 및 견과(HS코드 08)류 수입액의 7.1%를 차지함.
- 2019년 한국의 체리 수입은 중국, 러시아, 독일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음.

### 〈미국의 체리 산업〉

- 미국은 세계 체리 생산과 수출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음. 생산은 터키에 이어 2위 생산국이고, 수출은 칠레에 2위 수출국임(2019년 기준). 최근 칠레의 수출량이 급증하면서 칠레와 미국의 체리 수출량 격차가 크게 벌어짐.
- 미국의 체리 농가는 소비자 직거래와 도매시장 출하의 경로로 유통함. 소비자 직거래 경로는 체험농장, 농장 가판, 파머스마켓 등이 있음. 체리는 수확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품목으로 체험농장의 경로를 통한 유통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주립대학의 대학확장(Extension)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 미국의 체리 생산 주요 지역은 워싱턴, 캘리포니아, 오리건, 미시간주임.
  - 2019년 주별 생산량은 워싱턴주가 23만 9천 톤, 캘리포니아 5만 8천 톤, 오리건 5만 7천 톤임.
  - 주별로 생산되는 체리는 가격의 편차가 크게 나는데, 캘리포니아주 생산 체리가 전체 평균 가격을 상회하고, 나머지 주 생산 체리의 가격은 평균 가격 이하임.
  - 미시간주 생산 체리의 가격이 가장 낮는데, 이 주에서 생산되는 체리는 가공 비율이 93.7%에 달함.
  
- 미국의 체리 교역은 한 해 8만 1천 톤을 수출하고 약 1만 톤을 수입하고 있음.
  - 2019년 미국의 체리 수출액은 4억 8천만 달러, 수입량은 1만 톤임.
  - 주요 수출 대상국은 캐나다, 중국, 한국 일본의 순임. 대 일본 수출량이 감소 추세에 있고, 대 베트남 수출이 증가 추세에 있음.
  - 주요 수입 대상국은 칠레, 캐나다, 아르헨티나의 순임.

### 〈미국의 과일 관련 정책〉

- 미국에서 재배되는 주요 체리 품종은 빙, 웨란, 램버트, 래핀스, 레이니어, 스키나, 스위트하트, 티톤 등이 있음. 이 중 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종임.
  
- 미국의 과일 관련 정책은 미국 내 또는 세계 시장에서 해당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특화작물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하여 마케팅 과 홍보, 데이터와 정보 수집, 식물 병해충과 질병 관리, 식품 안전교육,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과일과 채소의 포함 장려 등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작물보험과 재난 지원
  - 작물보험은 파종 전 보험에 가입하고, 수확량이 기준량 이하일 경우 보상하는 보험제도임.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함.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보전 프로그램, 재해 부채 경감 프로그램, 긴급 농업 대출 프로그램, 수목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 ○ 유통명령제

- 과일과 채소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임. 정책의 수단으로는 제품 품질 표준 강화, 공급 통제, 포장과 용기 표준화, 저장 능력 확보, 생산/마케팅 연구와 광고 지원 등이 있음.

#### ○ 급식 프로그램

- 과일과 채소가 농무부에 조달되고, 이는 학교급식 프로그램, 긴급 식량 지원 프로그램, 재난과 보충 급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통되도록 하는 정책임. 이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영양과 농산물 생산자를 동시에 지원함.

#### ○ 무역 촉진 프로그램

- 시장 접근 프로그램은 상품신용공사의 기금을 이용하여 생산자, 수출업자, 민간기업과 기타 무역조직의 소비자 홍보, 시장조사, 기술지원 무역서비스 등의 활동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
- 특화작물 기술지원 프로그램은 특화작물 시장을 개방/유지/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

#### ○ 시장 조정 프로그램

-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작목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
- 2018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의 결과 피해를 입은 체리에 대한 지원이 있었음.

## 〈한국의 체리 산업〉

- 한국의 체리 재배 시작은 19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재배 규모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2019년 재배면적은 688ha 정도로 추산됨.
  - 주산지는 경주와 대구이며, 최근 전국적으로 신규 과원이 조성되었음.
- 농가는 체리를 주 작물로 재배하기 보다는 보조 작물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 농가 당 재배규모가 영세하고, 전업농 비율이 매우 낮음. 농가 당 체리 경지면적은 552평으로 사과(1,660평), 배(1,270평)에 비해 규모가 영세함.
- 체리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수입량은 15,856톤, 수입금액은 1억 3,676만 달러에 달함.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칠레이며, 미국이 독식하던 시장에서 칠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시사점〉

- 한국의 주요 체리 수입국인 미국과 칠레는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체리의 수출이 연중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음. 이는 하계 과일뿐 아니라 동계 과일과도 경쟁 관계에 있음을 의미함. 이 때문에 체리의 수입 증가가 한국의 과일 산업에 주는 피해를 관찰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 생산되는 체리는 수입 체리에 비해 외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주로 재배기술의 낙후와 기후 조건에 따른 품종의 제한이 원인으로 판단됨. 향후 한국의 기후에 적합한 품종의 도입 또는 개발이 시급하며, 재배 기술개발과 보급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체리는 수확 기간이 짧고 보관성이 좋지 않은 품목으로 수확과 선별/포장에 많은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노동비의 비율이 큼. 이 때문에 노동력 절감 재배기술의 보급이 필요하고, 소비자 직거래, 특히 체험농장의 유통경로를 활용하면 소비자와의 친밀도를 높이며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NASS PRESS RELEASE. 2020. 6. 11.
- Northwest farm credit services. 2018. 2018 Industry perspective Cherries.
- University of Tennessee. 2014. A Farmers Guide to a Pick Your Own Operation.  
University of Tennessee Extention.
- USDA. 2010. 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 A Handbook for Schools.
- USDA. 2020. 5. Noncitrus Fruits and Nuts 2019 Summary.
- USDA. 2020. 9. Fruit and Tree Nuts Outlook.
- USDA AMS. 2005. Shipping Point and Market Inspection Instructions.
- USDA NASS. 2020. Agricultural Statistics.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내부자료.
- 남은영·윤익구·곽용범·김정배·김홍림·김기덕. 2011. 『블루베리, 양앵두 고품질 품종선발 및 재배시스템 개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험연구보고서.
- 농촌진흥청. 2019. 『2018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 농촌진흥청. 2019. 『2018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집(체리-경북기준)』.
- 농촌진흥청. 2020 농식품소비트렌드 발표대회. “농식품 소비, 10년을 돌아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6. “FTA Issue Report - 체리 수급 동향과 시사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7. “FTA Issue Report - 미국산 체리 수입 및 국내 생산 동향.”

### 〈참고 인터넷 사이트〉

- AGMRC(Agricultural marketing resource center). <[www.agmrc.org/](http://www.agmrc.org/)>. 검색일: 2020. 11. 3.
- FAOSTAT. <[www.fao.org/faostat/en/](http://www.fao.org/faostat/en/)>. 검색일: 2020. 11. 3.
- NASS(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www.nass.usda.gov/](http://www.nass.usda.gov/)>. 검색일: 2020. 11. 3.
-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un.org](http://comtrade.un.org/)>. 검색일: 2020. 11. 3.
- USDA PSD Online. <[apps.fas.usda.gov/psdonline/app/index.html#/app/home](http://apps.fas.usda.gov/psdonline/app/index.html#/app/home)>. 검색일: 2020. 11. 3.
- USDA ERS. <[www.ers.usda.gov](http://www.ers.usda.gov)>. 검색일: 2020. 11. 5.
- USDA ERS. 2020. Fruit & Tree Nuts\_Market.  
<[www.ers.usda.gov/topics/crops/fruit-tree-nuts/policy](http://www.ers.usda.gov/topics/crops/fruit-tree-nuts/policy)>. 검색일: 2020. 11. 5.
- USDA FSA. Adds Shelled Almonds and Fresh Sweet Cherry to Market Facilitation. Program  
<[www.fsa.usda.gov/news-room/news-releases/2018/nr\\_20180921\\_rel\\_0193](http://www.fsa.usda.gov/news-room/news-releases/2018/nr_20180921_rel_0193)>.  
검색일: 2020. 11. 5.
- USDA FAS. 2020. Market Access Program (MAP) Outlook\_Policy.

〈[www.fas.usda.gov/programs/market-access-program-map](http://www.fas.usda.gov/programs/market-access-program-map)〉. 검색일: 2020. 11. 5.  
농림사업정보시스템. 〈[www.agrix.go.kr](http://www.agrix.go.kr)〉. 검색일: 2020. 11. 12.  
농사로. 〈[www.nongsaro.go.kr](http://www.nongsaro.go.kr)〉. 검색일: 2020. 11. 12.  
미국 농무성 농업유통서비스. 〈<https://www.ams.usda.gov/rules-regulations/moa/930-tart-cherries>〉. 검색일: 2020. 11. 12.  
미국 농무성 MFP. 〈<https://www.usda.gov/media/press-releases/2018/09/21/usda-adds-shelled-almonds-and-fresh-sweet-cherry-market>〉. 검색일: 2020. 11. 12.  
미국 북서부 체리 재배자 협회. 〈[www.nwcherries.co.kr](http://www.nwcherries.co.kr)〉. 검색일: 2020. 11. 17.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농식품수출정보. 〈[www.kati.net](http://www.kati.net)〉. 검색일: 2020. 11. 19.